

91.3.12 “결혼 지참금 왜 안가져왔나”

신혼 아내 코뼈 부러뜨려

서울 북부경찰서는 11일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처를 입힌 박현태(30·회사원·서울 도봉구 도봉1동 580-21)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시고 들어가 부인 이숙자(28)씨에게 “왜 지참금을 안가져왔느냐”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.

91.3.15

지하방 세든 부부

싸우다 방화 자살

14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15 다세대주택 지하방에 세들어 사는 오재식(39·노동) 김동심(33·여)씨 부부가 불에 타 숨졌다.

경찰은 남편 오씨가 평소 노름을 좋아해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이날 아침에도 “같이 죽자”며 심하게 다투었다는 이웃들의 말에 따라 부부싸움 끝에 방안에 불을 지르고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.

이날 불이 날 당시 오씨 부부의 딸(8·국2)은 학교에 가 집에 없었으며 아들(5)은 부모가 현관 문 밖으로 내보내 화를 면했다.